

문화재생 유휴공간의 장소성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Placeness Formation Elements in Culturally Regenerated Idle Spaces

Author 황유림 Hwang, You-lim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황연숙 Hwang, Yeon-Sook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Abstract With the ris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number of idle spaces has increased due to the closure of industrial facilities, leading to various social issues. These spaces, which hold historical and symbolic value as industrial cultural assets, are gaining attention for their potential to be repurposed through cultural regeneration. However, physical regeneration alone has limitations in ensuring sustainable use. Place-based regeneration has emerg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secure the distinctiveness and continuity of such spaces by utilizing regional cultural resources. It also fosters local identity, strengthens social cohesion, and contributes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This study analyzes seven sites selected for the 'Idle Space Cultural Regeneration Activation Project' focusing on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placen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previous research, four key elements of placeness were identified—physical, behavioral, semantic, and historical. Second, physical elements were most prominently observed, particularly in terms of accessibility for external visitors and visual and physical integ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Third, semantic elements appeared to be the least developed, as the lack of sensory stimulating features limited visitors' emotional eng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spatial immersion by incorporating multisensory stimuli that align with the space's character and function. Fourth, in terms of behavioral elements, efforts were made to strengthen community connections and promote cultural revitalization. Various interactive spaces were created through cultural activities, and digital platforms were utilized to provide program information and support community engagement. Fifth, with respect to historical elements, the original structures were preserved while being harmonized with newly added modern spaces. Elements symbolizing the site's former industrial functions were also incorporated to effectively convey its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Keywords 장소성, 문화재생, 유휴공간, 재생공간, 복합문화공간
Placeness, Cultural Regeneration, Idle Space, Regenerated Space, Complex Cultural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능이 정지된 산업시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고유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산업문화자산으로서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¹⁾ 이에 따라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정부는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 및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2014~)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건축과 차별화된 형태와 구조를 지닌 유휴공간은 물리적 재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²⁾ 이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성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장소성 기반의 공간 재생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공간의 차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sh@hanyang.ac.kr

** 본 연구는 2025년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조연주(2011).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2) 이윤혜(2015). 폐산업시설활용 문화예술공간의 민간자율 운영체계를 위한 정책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한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생 유휴공간에 적용 가능한 장소성 형성요소를 도출하여 문화재생 유휴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유휴공간 재생 과정에서 장소성이 지니는 의미와 과거 시설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현재 공간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유휴공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사례 중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7곳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소성 형성요소와 문화재생 유휴공간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장소성 형성요소를 추출하고 문화재생 유휴공간에 적용 가능한 분석 틀을 도출한다. 셋째,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사례 중 최근 5년 이내에 조성된 사례 7곳을 현장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도출된 분석 틀을 바탕으로 문화재생 유휴공간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재생 유휴공간

문화재생 유휴공간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적 요소를 매개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이다.⁴⁾ 이는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공간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과 참여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시설, 창고, 폐공장 등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회복하며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 이처럼 문화재생 유휴공간은 비활용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자원의 보존과 창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의 운영,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기적

3) 박가윤(2020). 공간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재생 공간의 장소성(Placeness) 형성 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4) 신현우(2020).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울.
5) 최보경(2017). 미군기지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사례 연구. 인문콘텐츠, 46, 203-226.
6) 지역문화진흥원(2023). 2023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방문자 조사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2.2. 장소성 형성요소

(1) 장소성의 개념

장소성은 특정 장소가 지닌 시간적·역사적·사건적 맥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며 이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연대 구축의 기반으로 작용한다.⁷⁾ 이에 따라 장소성을 반영한 공간 계획은 장소 고유의 특성과 개인의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⁸⁾ 선행연구에 따른 장소성 개념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장소성의 개념

연구자	내용
Park & Kim (2024)	공간(Space)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 행위에 따라 형성되는 경험과 의미의 총체
Lim (2024)	인간이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인식으로 인간과 장소가 가진 요소가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상호관계적 개념
Park (2020b)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동체 및 구성원이 관계를 맺은 기억과 흔적이 있는 것을 의미
Han (2019)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공간에 부여된 의미로 인본주의 지리학의 이론에 기초한 개념
Shin (2016)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장소의 물질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소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
Choi (2016)	특정 장소의 물리적 특성, 이미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장소의 성격

(2) 장소성의 형성요소

장소성 형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장소성 관련 연구 중 유휴공간이나 문화재생을 중심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Park(2024), Han(2023), Park(2020a), Chae & Seo(2019), Han(2019), Kim(2019), Lee(2019), Shin(2016)을 분석한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의미를 지닌 용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 형성요소를 ‘물리적’, ‘행태적’, ‘의미적’, ‘역사적’ 요소로 도출하였고 <표 2>와 같이 재정의하였다.

<표 2> 장소성 형성요소

형성요소	내용
물리적	공간의 환경적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 접근성, 안내 체계, 자연환경 등 실질적인 공간구성 요소
행태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참여를 통해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람의 행위 중심 요소
의미적	장소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애착 형성 등 개인의 내면적 해석을 통해 공간에 부여되는 심리적 요소
역사적	과거의 흔적과 산업 활동의 잔재 등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적 맥락을 포함하는 요소

7) 최동혁(2016). 장소성의 개념을 적용한 건축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텀스 강북 합문화공간 계획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513-520.
8) 황유림(2025). 문화재생 유휴공간에 나타난 장소성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1) 물리적 요소

문화재생 유희공간의 물리적 요소는 지리적 위치, 경관, 공간 구성과 같이 공간의 기본적인 고정적인 환경을 의미한다(Han, 2019; Kim, 2019).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장소의 기능적 활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Lee(2019)는 접근 용이성, 안내체계, 보행환경 등 이용 편의성과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내체계, 동선 유도 등 공간 인지성과 관련된 요소들은 물리적 환경의 일부로 간주하여 물리적 요소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방문객의 공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형성에 기여한다.

2) 행태적 요소

문화재생 유희공간의 행태적 요소는 사람과 장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문화적·인적 교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다(Park, 2024; Han, 2023). 이는 단순한 공간 이용을 넘어 사람들의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Chae & Seo(2019), Han(2019)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통해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여 문화 향유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의미적 요소

문화재생 유희공간의 의미적 요소는 장소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지 중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Lee, 2019). 이는 개인의 경험, 의도, 해석을 통해 정서적 관계와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며 장소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Park, 2020a; Shin, 2016). 이러한 의미적 요소는 공간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며 방문객에게 정서적 애착을 유도한다(Han, 2023). 더불어 장소에 대한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장소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4) 역사적 요소

문화재생 유희공간의 역사적 요소는 과거 장소에 축적된 기억과 산업 활동의 흔적을 보존함으로써 형성된다(Park, 2020a; Shin, 2016). 이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이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해석되고 과거의 기록을 통해 장소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Han, 2019; Kim, 2019). 이러한 역사적 요소는 공간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적 맥락을 바탕으로 장소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3. 장소성 형성요소 관점에서 본 문화재생 유희공간 체크리스트

장소성 형성요소와 문화재생 유희공간을 주요 키워드로 다룬

선행연구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생 유희공간 사례분석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표 3>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3> 장소성 형성요소 관점에서 본 문화재생 유희공간 체크리스트

구분	분석 항목
물리적	A1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는가
	A2 공간의 용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 안내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A3 해당 공간이 조경, 수목, 자연광 등의 외부 자연 환경 요소와 시각적 또는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행태적	B1 지역 단체와의 협업 및 지역 콘텐츠 반영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가
	B2 방문객 간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 테이블, 오픈 무대 등 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B3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확장을 촉진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가
의미적	C1 방문객의 감각을 자극하여 몰입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소리, 냄새 등 감각적 요소가 조성되어 있는가
	C2 조형물, 공간 명칭, 그래픽 등 시각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람들이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C3 공간의 색채, 조명, 재료 등이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역사적	D1 기존 건축물의 외형, 재료 등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거나 재해석하여 현재 공간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가
	D2 과거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하는 이미지, 오브제 등이 공간의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D3 장소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 공간, 해설 패널 및 장치, 안내 콘텐츠 등 정보 제공 요소가 제공되어 있는가

4. 사례분석

4.1. 사례 대상 개요

본 연구는 산업 및 경제 구조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유희공간의 증가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유희공간 중 최근 5년 이내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사례 7곳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사례 대상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사례 대상 개요

구분	사례명	과거 공간명	위치	연면적	개관연도
A	광양예술창고	광양역 물류창고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4	902㎡	2021년
B	장생포문화창고	세창냉동창고	울산 남구 장생포교래로 110	6,275㎡	
C	무릉별유천지	석회석 광산	강원 동해시 이기로 97	1,570㎡	
D	순화문화창고	농협양곡창고	전북 순창군 장류로 331-3	330㎡	
E	연산문화창고	농협양곡창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31번길 28	1,332㎡	2022년
F	조치원1927 아트센터	산일제사공장→임시학교→편물공장→한림제지공장	세종 조치원읍 새내4길 17	2,387㎡	
G	남원아트센터	KBS남원방송국	전북 남원시 만인로 92	4,585㎡	

4.2. 사례분석

(1) 사례 A: 광양예술창고

광양예술창고는 구 광양역과 연계하여 1970년대 창고로 사용되었던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2011년 광양역의 이전으로 인해 폐창고로 장기간 방치되었으나 전라남도과 광양시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거점으로 재생되었다. 2021년 전남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요는 <표 5>와 같다.

<표 5> 사례 A. 광양예술창고

공간개요	위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4		
	개관연도	2021년	면적	902㎡
	과거용도	광양역 물류창고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이미지				
구분	분석 내용			
물리적	A1	도보 약 300m 거리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함		
	A2	각 공간의 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됨		
	A3	소교동 B동은 전면에 대형 통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미디어 A동을 포함한 전체 외관은 유리 파사드를 활용함으로써 외부 조경과의 시각적 연계가 가능함		
행태적	B1	2025년 기준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단체 협업 및 지역 콘텐츠 반영 프로그램의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B2	소교동 B동에 카페 겸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디어 A동에 시민 참여로 제작된 그림 타일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구성한 참여형 벽화가 설치됨		
	B3	주말 프로그램 예약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 홈페이지나 SNS와 같은 별도의 디지털 플랫폼은 운영되지 않음		
의미적	C1	미디어 영상실은 소리와 공기 습도 등 감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방문객의 정서적 반응과 장소에 대한 기억 형성을 유도함		
	C2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 인식을 통한 장소 이미지 형성에는 한계가 있음		
	C3	따뜻한 백색광 계열의 조명, 파스텔 톤의 색채, 곡선형 가구, 밝은 톤의 목재 마감재, 동물 형태의 조형물 등을 배치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친근한 분위기를 유도함		
역사적	D1	과거 건축물의 공간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내부 천장은 별도로 마감하지 않고 원형의 목재 트러스 구조와 벽돌 마감을 그대로 드러낸 형태로 시공하여 현재 공간에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음		
	D2	과거 공장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을 모티브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한 설치물이 배치됨		
	D3	공간 내부에 '광양읍 역사 폐창고의 유래'라는 안내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시각적으로 전달함		

(2) 사례 B: 장생포문화창고

장생포문화창고는 1970년대 세창냉동창고로 사용되었던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과거 장생포는 고래잡이 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하였으나 2000년 포경 산업 쇠퇴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었었다. 울산광역시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공간을 재활용하였으며 2021년 정식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원

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공간구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였고 현재는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개요는 <표 6>과 같다.

<표 6> 사례 B. 장생포문화창고

공간개요	위치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개관연도	2021년	면적	6,275㎡
	과거용도	세창냉동창고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이미지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1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함		
	A2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과 공간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각 공간의 기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됨		
	A3	각 층의 로비에는 통창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외부 조경과의 시각적 연계가 가능함. 또한 일부 구역에는 인조 잔디가 도입되어 실내에서도 자연환경 요소와의 간접적 연계를 형성함		
물리적	B1	매년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상주단체로 선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립교향악단 단원의 지도 하에 '시민음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악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B2	4층 로비에는 전시와 관련된 팸플릿과 엽서 등이 비치된 좌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6층 로비에는 책이 전시되어 있어 책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파가 배치됨. 옥상 로비에는 방문객들이 직접 그린 그림 상자를 벽면에 부착한 참여형 전시가 마련됨		
	B3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체험, 전시, 공연 등의 예약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		
의미적	C1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피아노 계단으로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청각적 장치를 통해 방문객의 공간 몰입 경험을 유도함		
	C2	건물 외벽에는 대형 고래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으며 진입부 및 실내 공간에는 고래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캐릭터 이미지가 설치됨. 특히 안내 표지, 홍보물, 포토존 등 다양한 공간에 고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활용됨		
	C3	로비 공간의 벤치 및 소파는 부드러운 소재의 곡선형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시각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 체험 공간 내부는 벽면에 선명한 노란색 패널을 적용하고 확산 조명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따뜻한 빛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고 체험 활동에 대한 몰입을 유도함		
역사적	D1	천장과 기둥에는 기존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보수의 흔적을 남긴 채 유지함으로써 과거 건축물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냄. 기존 냉동창고의 문짝을 그대로 활용한 출입구는 과거의 기능적 요소를 시각적 장치로 재해석하여 현재의 전시 공간과의 역사적 연결성을 형성함		
	D2	과거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나 오브제 등이 시각적으로 배치되지 않음		
	D3	과거 작업자들이 이용하던 '세창의 옛 계단'과 세창냉동창고 시절 사용되었던 '세창냉동창고 방송장비'를 전시와 설명 패널을 배치하여 과거 공간의 사용 흔적과 의미를 전달함		

(3) 사례 C: 무릉별유천지

무릉별유천지는 무릉계곡 인근의 석회석 채광 산업시설 부지를 문화·생태 복합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이다. 1968년부터 석회석 채굴장 및 공장으로서 활용되었으나 채석 산업의 쇠퇴로 장기간 방치되었었다. 동해시는 산업 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문화체험 기능을 접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2021년 정식 개관하였다. 현재는 자연 생태, 지역 자원, 예술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복합문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는 <표 7>과 같다.

〈표 7〉 사례 C. 무릉별유천지

공간개요	위치	강원 동해시 이기로 97		
	개관연도	2021년	면적	1,570㎡
이미지	과거용도	석회석 광산	현재용도	복합문화체험공간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3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건물 전면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함		
	A2	각 층의 계단과 이동 동선에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어 각 공간의 기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됨		
	A3	내부는 통창으로 계획되어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며 외부는 호수, 정원, 석회석 절벽 등 자연 요소와의 물리적 연결을 중심으로 조성됨		
물리적	B1	상설 프로그램인 '도슨트와 청옥·금곡호 소금길 걷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7월에는 라벤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으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		
	B2	2층 석회 절벽 중앙에는 포토존과 좌석이 배치되어 있어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됨		
	B3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션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나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거나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활동은 운영되지 않음		
의미적	C1	방문객의 감각을 자극하여 공간에 대한 몰입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요소는 별도로 조성되지 않음		
	C2	주요 시설과 안내 체계 전반에 'MUBU' 로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라벤더의 상징색인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인지하도록 유도함		
	C3	쇄석장의 공간 특성상 콘크리트 재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색채, 조명, 재료 등의 요소가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음		
역사적	D1	철제 구조물, 벽면 마감, 배관 등 과거의 원형을 유지한 채 공개되고 있으며 일부 구조물은 녹과 페인트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연결 브릿지, 기둥 등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일부 공간에서는 거칠게 남겨진 콘크리트 단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건축적 재해석이 이루어짐		
	D2	당시 작업자들이 착용했던 보호장비를 비롯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던 통신 장비와 시멘트 포대 등이 전시되어 공간의 역사성이 시각적으로 표현됨		
	D3	석회석 생산 과정, 시멘트 산업의 역사, 작업자의 장비, 도서 아카이브 등 다양한 설명 패널과 전시 콘텐츠가 구성됨. 해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소의 맥락적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체계가 마련됨		

(4) 사례 D: 순화문화창고

순화문화창고는 과거 농협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창고로서의 기능이 중단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나 순창군은 지역 청소년과 예술 동호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창작 기반으로 재생하였으며 2021년 정식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무용창작실, 영상창작실, 음악창작실, 개인창작실 등 음악 연습과 영상 제작이 가능한 다양한 창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관료 없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개요는 <표 8>과 같다.

〈표 8〉 사례 D. 순화문화창고

공간개요	위치	전북 순창군 장류로 331-3		
	개관연도	2021년	면적	330㎡
이미지	과거용도	농협양곡창고	현재용도	문화예술공간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2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공간 전면에 주차장이 마련되었으나 주차 공간은 5대 규모로 다소 협소함		
	A2	각 공간의 출입구에는 공간명이 부착되어 있어 방문객이 각 공간의 기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됨		
	A3	자연환경 요소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창문은 공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상부에 위치해 있어 자연채광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		
물리적	B1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방문객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지 않음		
	B2	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소통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 간의 문화적 교류 및 자발적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음		
	B3	순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공간 대관은 가능하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티 형성 및 방문객 참여 유도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음		
의미적	C1	방문객의 감각을 자극하여 공간에 대한 몰입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요소는 별도로 조성되지 않음		
	C2	내부 공간 벽면에는 '순화문화창고'라는 명칭과 육각형 형태의 흡음 패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공간의 일관된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함. 건물 입구에는 음악을 상징하는 음표 장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 그래픽이, 지붕 위에는 트럼펫을 부는 소년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음		
	C3	내부 공간은 목재 질감의 패널로 마감된 벽면과 우드 소재의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함. LED 매입등과 보조 조명을 통해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여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하며 외벽은 원색 계열의 색채를 활용한 벽화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조화롭게 설계됨		
역사적	D1	과거 건축물의 구조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외형이나 재료 등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거나 재해석한 요소는 나타나지 않음		
	D2	과거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오브제 등 공간의 역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는 표현되지 않음		
	D3	장소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 공간, 해설 패널, 안내 콘텐츠 등 정보 제공 요소는 배치되지 않음		

(5) 사례 E: 연산문화창고

연산문화창고는 과거 농협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으나 논산시는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브랜드 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공간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정식 개관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되었으며 현재는 분리된 각 건물을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스마트팜 등 용도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요는 <표 9>와 같다.

〈표 9〉 사례 E. 연산문화창고

공간개요	위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31번길 28		
	개관연도	2022년	면적	1,332㎡
이미지	과거용도	농협양곡창고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35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약 150m 거리에 '연산역' 기차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함. 다만 연중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이용 시에는 약 연산역 앞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		
	A2	기능이 서로 다른 공간들이 각각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어 방문객이 각 공간의 용도와 기능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건물별 외관에 공간의 명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내부 역시 용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음		
	A3	각 건물마다 풀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개방감을 확보하여 자연광이 내부로 유입됨. 건물 중앙에는 잔디밭이 조성된 마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5동과 6동 사이의 놀이터 옆에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외부 자연환경 요소와 시각적·물리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물리적	B1	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콘텐츠를 반영함.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짐
	B2	외부 마당에는 공연, 행사, 지역 축제 등 오픈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공간에는 카페와 공유 테이블, 휴식 좌석 등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함.
	B3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예약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의미적	C1	농산물을 활용해 식물을 직접 만지고 수확하거나 식재료를 조리하여 시식하는 등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촉각·미각·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함
	C2	‘연산문화창고’라는 명칭과 로고는 각 동의 외벽과 안내 표지판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식철 재질의 입체 안내판과 조형물을 통해 방문객이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C3	외벽은 베이지 톤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며 내부는 목재, 벽돌, 베이지 톤의 폴리싱 콘크리트 바닥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함. 자연광과 LED 조명을 통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함
역사적	D1	과거 농협양곡창고의 외벽과 목재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과거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현재의 공간과 역사적 맥락 간의 연결을 재해석하여 형성함
	D2	과거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오브제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음
	D3	장소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 공간, 해설, 안내 콘텐츠 등 정보 제공 요소는 공간 내에 별도로 배치되지 않음

(6) 사례 F: 조치원1927아트센터

조치원1927아트센터는 1927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방적 공장으로 건립된 구 산일 제사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해방 이후 6·25전쟁 당시 조치원 여자고등학교가 소실됨에 따라 임시 학교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편물공장과 제지 공장으로 활용되며 2000년대까지 산업적 기능을 유지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되었으며 현재는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소규모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개요는 <표 10>과 같다.

<표 10> 사례 F. 조치원1927아트센터

공간개요	위치	세종 조치원읍 새내4길 17		
	개관연도	2022년	면적	2,387㎡
	과거용도	산일제사공장→임시학교→편물공장→한림제지공장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이미지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1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약 600m 거리에 ‘조치원역’ 기차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 전면에 주차 공간이 마련됨		
	A2	각 공간에 대한 명칭 표기가 부재하여 방문객이 공간의 목적과 사용 방식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어려움. 공간 안내도가 출입문에 가려져 있어 공간에 대한 이해와 동선 파악에 혼란을 초래함		
	A3	앞마당에 수목이 식재된 화분과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어 자연 요소와의 시각적·물리적 연계를 형성함. 내부 공간은 통창으로 계획되어 있어 외부의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식물과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환경과의 연계가 강조됨		
물리적	B1	정기적으로 벼룩시장과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외부 방문객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B2	카페 공간 내 공유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짐. 다목적 홀과 외부 앞마당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오픈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문화적 교류가 촉진됨		
	B3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Linktree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관 안내, 벼룩시장 판매 신청, 전시 및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의미적	C1	주로 시각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객의 감각을 자극하여 몰입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요소는 조성되지 않음
	C2	시각적 요소가 공간 전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방문객이 장소의 고유한 이미지를 인지하지 못함
	C3	다양한 조명 방식을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에 따라 조도와 분위기를 적절히 연출함. 목재 가구를 사용하고 일부 공간에는 식물 인테리어를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간에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함
역사적	D1	일부 벽면은 콘크리트와 벽돌 마감을 그대로 노출하여 과거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실내 천장에는 목재 트러스와 노출 배관 구조가 유지되어 과거의 흔적과 현대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형성됨
	D2	과거 산업시설로 사용되었던 붉은 벽돌 굴뚝, 산업용 탱크, 콘크리트 수조 시설 등이 보존되어 있으나 별도의 설명이나 해석이 제공되지 않아 역사적 이해로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D3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안내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 출입 동선이 아닌 별도의 외곽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방문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7) 사례 G: 남원아트센터

남원아트센터는 1952년 개국한 구 KBS 남원방송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2004년 방송국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52년간의 방송 기능을 마친 후 장기간 방치되었다. 남원시는 해당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재생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정식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공연장이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와 더불어 전시실, 회의실, 커뮤니티룸 등이 마련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개요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례 G. 남원아트센터

공간개요	위치	전북 남원시 만안로 92		
	개관연도	2022년	면적	4,585㎡
	과거용도	KBS남원방송국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이미지	  			
구분	분석 내용			
행태적	A1	도보 약 35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		
	A2	엘리베이터 전면에 층별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공간의 출입문에는 공간명을 명시한 표기가 부착됨. 모든 출입문이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이를 통해 방문객이 공간의 기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A3	각 층에는 넓은 통창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며 외부의 산악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공간에 개방감과 시각적 쾌적함을 제공함. 특히 2층은 야외 테라스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외부 자연환경과의 물리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물리적	B1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B2	야외 마당은 각종 행사나 공연 시 오픈 무대로 활용되며 2층 휴게공간에는 책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됨		
	B3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시 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난 프로그램들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여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과거의 활동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커뮤니티 확장을 유도함		
의미적	C1	방문객의 감각을 자극하여 공간에 대한 몰입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요소는 조성되지 않음		
	C2	건물 외벽을 비롯해 실내 공간에 남원아트센터 로고가 적용되어 있어 방문객이 공간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C3	공간의 색채, 조명, 재료 등이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	D1	외벽은 붉은 벽돌 마감이 유지되어 과거 방송국 건물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콘크리트 기둥과 보, 배관, 천장 구조물 등이 노출된 형태도 유지되어 당시의 건축적 특성이 현재 공간과 조화롭게 드러나고 있다.
	D2	과거의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오브제 등이 공간 내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D3	장소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 공간, 해설 패널, 안내 콘텐츠 등의 정보 제공 요소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4.3. 소결

장소성 형성요소를 기초하여 문화재생 유희공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반경 600m 이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이 양호하였다. 다만 사례 D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명칭과 안내 표지판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례 F는 명칭 표기가 부재하고 공간 안내도가 출입구에 의해 가려져 있어 공간구성과 동선을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자연광 유입을 위해 통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례 D는 공간 규모에 비해 창문 크기가 작고 상부에 위치해 있어 자연광의 유입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따라 자연환경과의 시각적·물리적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지역 단체와의 협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참여 유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 A, 사례 D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로 소통 구조가 미흡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방문객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공간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마련되어 있었으나 사례 D는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 간의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사례 A, 사례 B, 사례 E는 소리, 촉각, 미각 등 감각 자극을 활용해 공간 몰입을 유도한 반면 사례 C, 사례 D, 사례 F, 사례 G는 감각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감각 자극을 통한 공간 몰입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례는 공간 명칭, 로고, 그래픽 등 시각 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장소의 정체성 인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례 A, 사례 F는 시각적 이미지 요소가 부족하여 장소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 조명, 재료 등의 요소를 통해 방문객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사례 C, 사례 G는 재료 구성, 색채·조명 계획의 한계로 감정적 반응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산업 활동이나 기능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요소로 사례 A는 스테인리스 설치물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사례 C, 사례 F는 당시 사용되었던 장비 및 시설물을 보존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B, 사례 D, 사례 E, 사례 G는

과거의 기능이나 의미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오브제를 공간 내에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 장소의 역사성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 요소에서는 사례 D, 사례 E, 사례 G는 관련 전시나 안내 패널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례 F는 공간 외곽에 안내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의 인지가 어려워 정보 전달에 한계가 나타났다.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적 맥락, 공간의 운영 주체, 기존 건축물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장소성 형성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한 사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과거 산업 활동이나 공간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장소의 역사성을 강조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례는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화재생 유희공간에 적용 가능한 장소성 형성요소를 도출하여 문화재생 유희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사례 중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7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소성 형성요소로 ‘물리적 요소, 행태적 요소, 의미적 요소, 역사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물리적 요소는 공간의 환경적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 접근성, 안내 체계, 자연환경 등 실질적인 공간구성 요소이다. 행태적 요소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참여를 통해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행위 중심 요소이다. 의미적 요소는 장소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애착 형성 등 개인의 내면적 해석을 통해 공간에 부여되는 심리적 요소이다. 역사적 요소는 과거의 흔적, 산업 활동의 잔재 등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적 맥락을 포함하는 요소이다.

둘째, 문화재생 유희공간에 나타난 장소성 형성요소 중 물리적 요소는 외부 방문객의 접근 용이성과 자연환경과의 시각적·물리적 연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공간 규모에 비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창문 크기가 작고 상부에 위치하여 자연광 유입 제한되는 등 쾌적성 확보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근 유희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또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내 식물이나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요소의 도입을 통해 자연환경과의 간접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재생 유희공간에 나타난 장소성 형성요소 중 의미적 요소가 가장 부족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 요소가 부족하여 방문자의 공간 내

몰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공간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청각 환경 조성을 위한 음향 장치 설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후각적 콘텐츠 구성, 촉각 중심의 참여형 전시물 도입 등을 통해 방문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장소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태적 요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 참여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문화시설, 학교, 마을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어 공간 운영의 지속 가능성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요소 측면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과거 건축물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현재 공간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 활동이나 장소의 기능을 상징하는 오브제, 이미지, 안내 패널 등의 정보 제공 요소를 도입하여 장소의 역사성과 맥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시설의 가동 모습이나 당시 활동을 AR 또는 V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구현한다면 장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의 고유한 상징적 가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소성 형성요소 관점에서 문화재생 유휴공간을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생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장소성 형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공간 개선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내체계와 동선 유도 등 공간 인지성과 관련된 요소를 물리적 요소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 인지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지각요소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공간 이용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Chae, C. W., Seo, D. Y. (2019). A study on the Regeneration of Idle Factor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rough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Pl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4(7), 281-291.
2. Cho, Y. J. (2011). *A study on method of the conversion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for urban regener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3. Choi, B. G. (2017). Cultural regeneration of American military base under-used spaces: Focusing on the regeneration project of Camp Greaves. *Humanities Contents*, 0(46), 203-226.

4. Choi, D. H. (2016). A Study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Based on the Concept of Sense of Pla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513-520.
5. Han, J. H. (2023). *A Study on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Place's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Place Brand Value, Regional Image, and Revisit Inten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6. Han, S. H. (2019). *A Study on the Cultural Regeneration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Rural Area Using Plac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7. Hwang, Y. L. (2025).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Culturally Regenerated Idle Spaces*[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8. Kim, G. (2019). *The effect of sense of place, experience value, and shared value on corporate image and brand loyalty in multiplex cultural space*[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Korea.
9. Lee, S. K. (2019). *A Multiple Case Study on Cultural Regeneration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and Sense of Place*[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10. Lee, Y. H. (2015). *A Policy Research for Operating System of Private Autonomy of Cultural Art Space Using Waste Industrial Facilities*[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11. Lim, S. H. (2024). A Study on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Complex Cultural Sp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19(1), 521-532.
12. Park, G. Y. (2020a). *Analysis of Placeness Formation Factors of Space storytelling-based cultural regeneration space*[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13. Park, H. J. (2020b).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e Culture*[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Korea.
14. Park, J. W., & Kim, S. Y. (202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Factors of Sense of Retro Place in Euljiro: in Perspective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Region & Culture*, 11(1), 65-84.
15. Park, K. C. (2024). *A study on regional complex cultural space planning through space regeneration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16. Shin, H. W. (2020). *Regeneration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into multicultural spaces and vitaliz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17. Shin, Y. S. (2016). *A study of complex cultural space plan for the recovery of placeness*[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논문접수 : 2025. 06. 30]
[1차 심사 : 2025. 07. 18]
[2차 심사 : 2025. 08. 08]
[게재확정 : 2025. 08. 08]